

만년 3등급이 수능 1등급 받은 수학공부법

목차

0. 필자의 소개
1.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본인 실력 별 수학공부법
3. 실모활용법
4. 실수에 관한 고찰 및 실수 고치는 방법
5. 하고 싶은 말

0. 필자는 어떤 사람인가 (공부법에만 관심이 있다면 넘겨도 괜찮다.)

중학교 때 전교권을 하며 나름 공부 잘하는 애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소위 '갓반도'에서 수학만큼은 노력을 해도 항상 3등급이었다. 모의고사 역시도 가끔 일등급을 맞은 적이 있긴 했지만 중요한 시험 (6.9.수능) 에서는 항상 3등급이었다.

수학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수학에 시간을 가장 투자했었다. 계속 해도 오르지 않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싫었고 수학을 인생의 원수로 여겼다. 고액의 수학과외, 비싼 수학학원도 다녔다. 그래도 성적은 그대로.

재수할 때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한 달 100시간은 수학공부를 했다. 9월에 처음으로 맞은 1등급이 너무 소중한데. 해도 된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다. 하지만 수능의 결과는 처참했다. 역시나 3등급. 수학이라는 벽은 도저히 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잠했다.

재수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나는 그냥 적당한 대학교를 들어갔다(지방교대). 동기들도 좋았고 대학생활도 적당히 재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방학 때 자기계발을 하면서 "아.. 서울 가서 대학생활 하고 싶다.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 즈음 자아실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맨날 보는 동기들, 스펙 필요없는 대학생활, 매일 같은 지역에 노는 곳도 똑같았다. 이제껏 달려만 왔던 내 자신이 물었던 것 같다. "이게 네가 원하던 삶이야?" 과외를 하면서 돈도 벌고 있었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서울에 놀러도 갔다와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그냥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다. 인생에 한 번 쯤은 서울에서 성장해보고 싶었다. 그런 내 욕망이 강해지자 결국 나는 다시 수능길로 들어왔다. 그게 7월 중순이었다.

현역때 수능 성적이 23214 였고 (국수영생지), 재수 때 성적이 23234 였다. 진심으로 충격받았던 것은 등급이 오르지 않았을뿐더러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 부모님이 달에 300이 넘는 학원비를 보태주신 게 미안해서라도,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진심으로...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 좌절감이 너무나 심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수능은 보고 싶지 않았다. 시도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은 없을테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 노력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험이라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뒤에 자세히 얘기할 것이고 결과만 먼저 말하겠다. 나는 4개월 정도의 반수 끝에 올해 수능에서 88점을 맞았고 백분위 98을 달성했다. 성적을 보고 눈물이 났다. 드디어 인생의 벽을 깬구나. 내 인생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 상황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꼭 전수해주고 싶다. 잘 읽어주면 좋겠다. 당신이 만약 수학을 절대 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깰 수 있다는 것을. 그 증인이 나라는 걸.

1. 당신은 공부를 왜 하는가?

만약 당신이 다시 수능을 보기로 결심한 사람이거나 고3이라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재고해보면 좋겠다. “공부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데요? 남들이 하니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식의 답을 할 것이고 재수때까지의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공부는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니까. 사람마다 공부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는데, 나는 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학만큼은 정말 심했다. 솔직히 말해서 수학공부 하기 싫었다. 어차피 해도 안 나오는 거 왜 해야하나 싫었다. 그래도 했다. 삼수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거든. 진짜 서울 가고 싶었거든. 당신들도 이런 이유를 하나 가지고, 또는 마음가짐/자극제를 하나 붙여놓고 공부를 “**능동적으로**” 실행하라. 능동적으로 하는 공부는 효율을 가져오고 효율있는 공부는 시간을 꼭 채워서 쓸 수 있다.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표를 정했다면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정말 가난한 것이 아니라면 독학 재수 학원(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자신이 아무리! 정말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은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따위의 SNS는 비활성화를 타라. 인간의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온다는 말처럼 사람은 비교군이 있을 때 가장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함께 수험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확실히 심리적으로 덜 힘들다. 그렇게라도 몸이 공부라는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입시는 **외롭게** 해야한다. 입시에 변수는 수능 당일의 문제만으로도 족하다. 필자는 현역때와 재수때 모두 연애를 했다. “서로 의지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다. 모두 수험생이라면 덜하겠지만 한쪽이라도 그 상태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다. 애초에 수험생활은 외롭게 하는 게 맞다. 그냥 1년 독하게 하고 얼른 입시판을 떠나라. 어중간하게 즐기는 연애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인생에 남는다. **진심으로 수험생일때의 연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메타인지에 관해

자신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걸 인지하는 능력이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처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풀이 능력이 약하면 n제로 실력을 기르면 되고, 실전 운용이 약하면 실전 운용을 계속 연습하면 된다. **정말 ‘될 때 까지’ 하면 된다.** 구체적인 전략은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거듭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느정도 능력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인정해라. **능력 이상의 목표를 갖는 것 만큼 비참하고 힘든 일이 없다. 그냥 인정하고 노력하면 편해진다.**

행복회로를 돌리지 마라. 나는 망상이 심한 편이라 그런지 재수할 때 행복회로를 심하게